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그대가 스승을 보호주로 여긴다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으리니

여정을 위한 경비는 스승에 대한 헌신이다.

영적인 스승은 대지와도 같아서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스승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안내할 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늘이 있기에 항공기는 걸어서 가기 어려운 곳에 빠르게 데려다 줍니다. 스승에 대한 헌신으로, 스승의 기도는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신속히 데려다 줍니다.

‘다르마’ 단어의 의미 중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견디고 확신을 갖도록 안내합니다. 어떤 사람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힘센 손을 가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단단히 잡고 강기슭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승은 죽음과 윤회라는 헛바퀴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근본불교에서 대원만 수행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른 어떤 단계의 수행자이건 정통을 지닌 스승의 안내 없이도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스승은 수행의 진전과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잠재된 장애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해주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향한 여정길에 헌신이 그 여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헌신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실천부문 대상



일면 스님



앤더라힘 엘 알람 작가



다공 따야 작가

평화부문 대상



김성수 성공회 주교



페틀라 굴렌 운동가



세계불교도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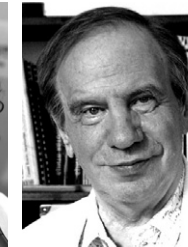
문예부문 대상



안숙선 교수



잉고 쉴체 소설가



콘스탄틴 케드르프 시인

올해 만해대상 역대 최대 규모 시상

만해선양회, 실천·평화·문예부문 9명 선정

생명나눔 실천 일면 스님 등 사회 귀감인 인물 이름 올려 시상식 8월 11일 인제서 개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3월 4일 2013년 만해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2013년 만해대상은 평화·실천·문예 등 3부으로 나눠 역대 최대로 9명이 선정됐다.

실천부문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앤더라힘 엘 알람 작가, 다공 따야 작가 등이 선정됐다.

일면 스님은 불교계 장기기증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어 불교자비정신을 사회에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생명나

눔실천본부에는 2012년까지 12만여명의 회원과 32,814명의 장기기증희망자가 등록돼 있으며 207명의 말기질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아 새 생명을 찾았다. 일면 스님은 이 밖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계종 균종특별교구 초대 교구장을 맡아 46개 군법당 중장 봉사 등을 진행했으며 광동학원, 해인장학회 등 교육사업에도 매진해왔다.

앤더라힘 엘 알람 작가는 모로코 출신으로 모로코작가연합회 회장 및 아랍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문화잡지 AFAQ 책임자를 맡아 문학을 통한 평화운동에 앞장 선 바 있다.

다공 따야 작가는 미얀마 출신으로 미얀마 아웅산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열사다.

평화 부문에는 김성수 성공회 주교, 페틀라 굴렌 운동가,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선정됐다.

김성수 성공회 주교는 30년을 넘게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 등에 나선 이은 은퇴 후에도 정신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우리마을’에서 총장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페틀라 굴렌 운동가는 터키의 교육운동가 및 평화운동가로서 9·11테러 이후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대화를 주도하는 이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는 남방불교, 대승불교, 금강불교 등으로 세분화된 불교를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불교도 단체로 매 회기마다 세계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 점이 인정받았다.

문예 부문에는 안숙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를 비롯해 잉고 쉴체 소설가, 콘스탄틴 케드르프 시인이 선정됐다.

안숙선 교수는 맥이 끊기다 시피한 판소리를 잇는 이로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병창 기능보유자다. 남원에서 태어나 1979년 국립장극단에 들어간 안숙선 교수는 1986년부터 1999년 국립극장에서 판소리를 완창하며 대중들에게 판소리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잉고 쉴체 소설가는 동독과 서독 분단 당시 인간과 사회 문제를 살핀 부분을 진단한 소설가로 20세기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이다.

콘스탄틴 케드르프는 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자로 2003년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오르기도 했다. 그는 시를 통해 러시아 냉전시절과 그 이후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해 KGB로부터 고문과 박해를 받기도 했다.

한편 2013년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1일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和而不同’ 화두로 국민에게 봉사하라”

국회 정각회 신년 조찬 법회

불자 국회의원 신행 모임인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는 3월 5일 국회 본관 3층에서 신년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기희실장 주경 스님, 국회 정각회 의원 회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불자 국회의원들에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화두를 내렸다.

자승 스님은 “공존 공생, 상생 등 각계 각층에서 관련된 많은 단어를 만들고 외치고 있지만 사회의 뿌리깊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화이부동은 절충과 조화를 의미한다. 그 안에는 ‘서로 주고 받음’이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어떻게 상생하고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고민해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일백개 천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잔맛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다. 이것이 국민 통합의 방법이다”라며 “넓은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는 3월 5일 국회 본관 3층에서 자승 스님 초청 신년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바다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새누리당)은 인사말에서 “진영과 정쟁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불자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며 “보살의 자비정신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강정일 정각회 부회장(민주당)은

발원문 낭독에 앞서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상황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모든 사부대중의 염원인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올 상반기 경에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대학 동영상 강좌 조계종단 스님에 공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은)은 2013년 1학기 승가대학의 학인 스님 교육용으로 제작한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강좌를 종단 모든 스님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강좌는 총8개 강좌로 △세계종교의 이해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반야·중관사상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불교와 동서철학 △산스크리트어 △빠알리어 등이다.

주요 강사로는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 연구소 교수, 김성철 동국대 교수, 동양철학자 강신주 씨, 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법장사 퇴후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새로 추가된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는 백도수 박사와 선일스님(인도 뿌네 대학 박사)이 각각 강의를 맡았다.

수강을 원하는 스님은 교육원에 전화로 문의해 아이디 발급 절차를 거친 후 조계종 디지털대학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강의 교재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02)2011-1817 신종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雲寺

승가대학(강원) 신·편입생 모집

백양율원생 모집요강

고불총림 백양사승가대학은 조선 후기 불교법맥을 이어 환웅탄영, 석전영호, 만암종현, 석산상현, 원조각성, 동성혜권스님 그리고 지금의 강주스님에 이르기까지 기라성 같은 강백들께서 강맥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속에 백양사 강원은 체계적인 강원운영과 다양한 특강으로 전문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미래사회 종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백양사 강원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학인스님들의 입학을 공고하오니 큰 원력을 세우신 학인스님들은 반드시 입학하시길 기원합니다.

- 모집학년 \_ 치문 / 사집 / 사교
- 모집기간 \_ 불기2557년(2013년) 3월 25일(月)까지
- 제출서류 \_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은사스님 추천서 1부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1부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부  
· 승려증(행자교육필증,수계증명서) 사본 1부  
· 사진(가사만의, 2×3규격) 4매
- 준비물 \_ 대가사 / 만의(사미) / 장삼 / 발우
- 전 형 \_ 서류심사 / 면접
- 연락처 및 주소 \_ 승가대학 061)392-7324, 종무소 061)392-7502

\*입학 편입생 전원 사회복지학과 수강시 학비전액 지원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율원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해 근대 만암, 서옹스님에 이르는 계승정신으로 율맥이 깃든 청류암에서 30년간 백양강원을 주석한 율주 동성혜권스님의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지고지순한 행과 불법을 널리 신앙,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모집기간 : 불기2557년(2013년) 3월 25일(月)까지
- 모집인원 : 00명
- 교 과 목 :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반명함) 2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백양사 백양율원(청류암) ☎ (061)392-7506

\*입학 편입생 전원 사회복지학과 수강시 학비전액 지원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장



고불총림 백양사 백양율원장